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보안원
FINANCIAL SECURITY INSTITUTE

보도	2022.10.5.(수) 15:00	배포	2022.10.5.(수)		
담당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디지털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김용태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김택주	(02-3145-7125)
	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	책임자	부 장	이상록	(02-3495-9700)
		담당자	팀 장	이성욱	(02-3495-9720)

금융분야 오픈소스 활용지원 안내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.

1 추진 배경

- 금융분야에서는 급변하는 IT 기술환경에 대응하고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AI 등의 新기술 도입을 위해 오픈소스* 활용이 확대

*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에 무상으로 공개하여 IT개발자가 자유롭게 이용·수정·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

- 다만,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, 오픈소스 활용 및 관리체계 운영상에 있어 보안관리가 다소 미흡*한 것으로 평가

* 권역별 주요 금융회사(120개사)에 대한 조사결과 오픈소스 보안관리 정책을 수립·운영 중인 금융회사는 27개사(23%)에 불과

- 오픈소스 관리미흡시 악성코드 감염, 외부해킹 등에 따른 금융보안사고에 노출되어 디지털혁신이 저해될 우려

- 일부 금융회사는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해 감독당국의 안내, Best-practice 전파 등을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

- 이에 따라, 10.5.(수)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 및 금융업계*와 금융분야의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

* 국민은행, 카카오뱅크, 한국투자증권, 신한라이프, 네이버파이낸셜

2 주요 논의내용

- 금일 회의시 참석자 모두는 금융분야의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오픈소스의 안전한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,
 -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는 오픈소스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음
- 이에 따라,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,
 - ①금융분야의 오픈소스 도입, 활용, 관리절차 및 ②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'자가점검 체크리스트',
 - ③오픈소스 활용 및 관리체계 우수 사례(Best-practice)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임

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

- 금융감독원은 실무작업반과 공동으로 안내서 초안을 마련한 후,
 - 금년 중 관계 부처 및 금융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「금융 분야 오픈소스 활용지원 안내서」를 최종 확정할 예정
 - 동 안내서가 마련되면 금융분야에서 오픈소스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,
 - 지속적인 금융혁신과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※ (참고) 동 안내서는 법령·행정지도 등 금융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며,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강화를 통한 디지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오픈소스 활용현황

- '22.8월 권역별 주요 금융회사(120개사)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, 115개사(96%)가 오픈소스를 활용중
- 웹어플리케이션 개발(WAS),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(DBMS), 운영체제(OS), 빅데이터 개발 順으로 오픈소스 활용이 활성화

주요 금융회사의 오픈소스 활용분야

[단위 : 개사]

WAS	DBMS	OS	빅데이터	AI	클라우드	블록체인	IoT
103 (86%)	97 (81%)	97 (81%)	52 (43%)	44 (37%)	33 (28%)	14 (12%)	1 (1%)

주요 활용사례

- ①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(DBMS)을 구축하여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및 개발 효율성을 제고
- ②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, 신용평가 모형분석 등에 활용
- ③ बैं킹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환하고 상용 S/W 구매를 최소화하여 IT 운영비용을 절감
- ④ 오픈소스를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(App)을 개발하여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출시
- ⑤ AI를 통한 이미지, 음성 학습 및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활용 등